

# 의용소방대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의 정 토 론 회

- 일 시 : 2016. 10.26.(수) 15:00
- 장 소 : 충남천안교육지원청 대강당(5층)
- 주 최 :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6. 10.26.(수) 15:00 ~ 17:00
- 장 소 : 충남천안교육지원청 대강당(5층)
- 주 최 : 충청남도의회
- 주 제 : 의용소방대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 진행 흐름

| 시 간   | 내 용                          | 비 고                               |
|---|------------------------------|-----------------------------------|
| <b>&lt; 개 회 식 &gt;</b>                        |                              |                                   |
| 15:00~15:05                                   | 05' 개 회 및 국 민 의 례            | 사회: 정책지원팀장                        |
| 15:05~15:10                                   | 05' 내빈소개, 개회사 등              | 홍성현 의원                            |
| <b>&lt; 토 론 회 &gt; ※ 진행: 최경식(충남소방동우회 부회장)</b> |                              |                                   |
| 15:10~15:30                                   | 20' 주 제 발 표                  | 홍성현 의원(20분)<br>(의용소방대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
| 15:30~16:30                                   | 60' 지 정 발 표 및 토 론            | 토론자 3명                            |
| 16:30~16:55                                   | 25' 의 견 수 렴<br>( 질 의 , 답 변 ) | 참여자 전체                            |
| 16:55~17:00                                   | 05' 정 리 및 폐 회                | 좌장(최경식 부회장)                       |



# 목 차

## ■ 주제발표

- ☞ 의용소방대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 5  
홍성현(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의원)

## ■ 지정토론

- ☞ 지역안전 파수꾼으로서의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 방안 .... 11  
이호명(충청남도의회용소방대연합회 회장)
- ☞ 친서민 소방봉사단체로서 이미지 구축 강화 방안 .... 19  
김형미(천안동남소방서의회용소방대연합회 여성회장)
- ☞ 의용소방대 위상 제고 및 발전방향 ..... 25  
김태익(천안동남소방서 소방행정과장)



## 주제 발표

### 의용소방대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홍 성 현

(충청남도의회 의원)



## 의용소방대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충청남도의회 의원  
홍 성 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홍성현 의원입니다.

청명한 하늘과 오색 단풍이 어우러진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주민 여러분과 의용소방대원, 소방공무원, 그리고 소방 전문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정토론회의 좌장을 허락해 주신 충남 소방 행정 동우회 최 경식 부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 의용소방대는 367개대 10,327명으로 구성되어 지난해 833건의 화재 현장 출동, 2,482회의 생활안전 구조, 18,411회의 예방순찰 활동, 그리고 66,000명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보급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 안전을 위해 기여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분들의 헌신적 노력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표합니다.

의용소방대는 관 소방이 설치되기 전부터 조직되어 일제 강점기 경방단 소속으로 소방 활동을 하였고, 정부 수립 이후에는 전후 복구사업 및 국토재건, 한국전쟁시에는 방공단에 편입되었다가, 1953년 민병대 조직시에는 군사 훈련을 받아 향토방위에 협조하는 방공업무를 수행하는 등 의용소방대는 우리나라 격변의 역사 속에서 국가 안전을 위해 헌신하면서

발전한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25년 최초의 경성소방서가 설치되기 이전까지의 의용소방대 활동은 매우 광범위하고 적극적이었으며, 의용봉공(義勇奉公)의 상징이었던 단체였습니다.

현재의 건축 환경과 사회 구조 변화,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라 재난 양상이 복잡·다양화되고 소방의 수요와 도민의 안전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방관서 주도의 소방안전정책 추진만으로는 도민의 안전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어 소방관서의 소방안전정책 일부분을 의용소방대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용소방대가 분담하고 있는 화재예방을 위한 지역 안전 살핌이 등 의용소방대의 역할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입지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역사적 문화 정통, 조직과 제도, 의용소방대원의 행태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가별 문화 전통이라는 측면에서 자위 소방의 발전 정도를 살펴보면, 영미 국가는 전통적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해온 역사적 전통에 따라 ‘모든 시민은 화재, 범죄, 불법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자구적 책임의 전통이 강한 문화적 특성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는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의 전통에 따라 ‘화재와 범죄는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이라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1970년대 초부터 지방자치 소방체제로 변화하고 1991년 광역자치소방체제로 전환되는 등 나름대로의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에 의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의용소방대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선진 외국 의용소방대가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게 조직되고 편성·운영되는데 비해 우리의 의용소방대는 각기 다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직체로 운영되는 획일성 때문에 효율적 조직 운영이 어렵고 주위의 환경변화에 둔감할 수밖에 없으며,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이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국가적 노력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장비와 운영비 등 지원이 부족하고 관 소방과 달리 조직 체계에 대한 정비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원인으로 의용소방대원이 자기의 혜택을 먼저 생각하는 뒤떨어진 행태와 개인적 과시욕을 채우기 위해 제도를 역이용하는 대원들이 있는 한 바람직한 제도의 정착은 어렵고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에서 비롯되어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부정적 여론이 조성되고 의용소방대원으로 지원이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날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으나, 국가 경영 사회에서 민간봉사단체로서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활동이 적다고 비판하거나 축소 대상의 조직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의정토론회를 통해 고민하고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첫째, 민간 자율 봉사단체로서 의용소방대의 한계와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함으로서 정체성 확립과 의식을 함양함으로써 도민에게 신뢰받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을까?

둘째, 정규소방력 중심의 재난대응 추세에서 의용소방대의 본래 역할 강화와 더불어 재난 양상을 반영한 신규 활동영역을 발굴하고,

셋째, 제한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적제적소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넷째, 우수한 대원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에 대하여 고민해 보고 의용소방대가 지역사회 안전봉사단체로서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자로서 참석해 주신 충청남도의회용소방대연합회 이호명 회장님과 천안동남소방서 의용소방대 김형미 여성회장님, 동남소방서 김태익 소방행정과장님과 진행을 맡아주실 충남소방행정동우회 최경식 부회장님을 중심으로 아낌없는 토론과 정책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정토론회에서 나온 제언이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것이 본 위원회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정토론

◆ 지역안전 파수꾼으로서의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 방안

이호명(충청남도의회용소방대연합회 회장)

◆ 친서민 소방봉사단체로서 이미지 구축 강화 방안

김형미(천안동남소방서의용소방대연합회 여성회장)

◆ 의용소방대 위상 제고 및 발전방향

김태익(천안동남소방서 소방행정과장)



# 지역안전 파수꾼으로서의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 방안

충청남도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

이 호 명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 이호명입니다.

토론에 앞서 충남도민의 행복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의용소방대의 발전과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안전 건설해양소방위위원회 홍성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의용소방대의 발전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의용소방대원들과 주민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천안의용소방대의 연혁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린 후에 역할 재정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의용소방대는 해방이 되는 해인 1945년 8월 30일 김광수 초대대장님을 중심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질서유지와 치안 확보를 위해 천안경찰서 산하에 천안의용소방대로 발족하여 활동하다가, 1946년 4월 10일 군정법 제66호에 의하여 소방행정이 경찰에서 소방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천안소방서에 신설되었으나, 1950년 5월 27일 대통령령 제361호에 의거 천안소방서가 폐지되고 5월 30일부터 천안의용소방대가 자체적으로 소방업무를 처리하는 자치소방으로 활동하였습니다.

1970년 3월 12일 대통령령 제4725호에 의거 천안소방서가 설치 승인되어 동년 5월 13일 천안시 오룡동 39번지에 천안소방서가 개서되면서

천안소방서 의용소방대로 명칭을 바꾸어 활동하였고, 1974년 6월 1일 천안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를 설치하여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1993년 12월 17일 천안시 구성동 51-1번지로 천안소방서를 이전 신축하면서 천안의용소방대도 함께 이전하였고, 2011년 9월 27일 천안소방서가 천안동남소방서와 천안서북소방서로 분서됨에 따라 천안동남소방서 의용소방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16년 현재 천안동남소방서 의용소방대는 1읍 7면 9개동에 남성대 9개대와 여성대 9개대 및 4개지역대 총 22개대 약 500명의 대원이 합심하여 화재진압을 물론 예방순찰과 심폐소생술 전파 등을 실시하여 전국 제일의 안전파수꾼으로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역사가 71년이 지났고 한때는 소방서 없이 자체적으로 소방사무를 전적으로 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70년 전이 아니라 약 30년 전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았던 읍·면지역의 주택 화재부터 산불진압까지 대부분의 화재진압의 주체는 의용소방대원들이었고, 이들에 의해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의 단결력과 자긍심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충만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 도에도 시·군별로 소방서가 전부 설치되고 읍·면지역에도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었고, 소방공무원도 2400여명으로 급증하여 의용소방대의 활동영역이 축소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저는 우리 의용소방대가 지역의 안전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수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의용소방대원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① 신규대원 모집 시에 전문자격 취득자를 우선 선발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남소방본부 2015년 말 기준 통계에 의하면 동남소방서 관내 전담의용소방대 6개대 180명 중 전문자격소지자는 위험물1명, 고압가스1명, 통신기사 1명, 중장비 4명, 대형운전 21명 등 총 28명에 불과 합니다.

전문자격증 취득자를 의용소방대원으로 우선 선발하기 위해서는 관내 기업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난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자격 취득 현황을 일제히 조사하여 무슨 자격증을 몇 명이 갖고 있는지 세세한 현황을 파악한 후에, 이를 토대로 관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우수한 자원이 의용소방대원으로 입대하여 활동 할 수 있도록 기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최적의 근무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체 자체적으로는 소속된 의용소방대원이 화재 등으로 출동하였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해 주고,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민방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군훈련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민방위대 편성에서도 제외됨을 적극 홍보하는 등 보다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② 젊고 유능한 신규대원을 중심으로 각 의소대별로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비용을 지원하여 주는 것입니다. 다만, 자격취득 비용을 지원 받은 후 곧바로 의용소방대원의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으로 자격취득 비용의 50%만 지원하고 50%는 자부담하는 방법과, 자격취득 비용을 전액 지원받아 자격을 취득한 대원에 대하여는 최소 5년 이내에는 스스로 사직할 수 없도록 약속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실질적 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최적화된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체계적인 의용소방대원용 전문적인 교육 자료가 없었고, 또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자체적인 교육만 실시하여 실제적으로 현장 대응 능력 미흡 및 대응활동 참여 의식이 저하 된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의용소방대가 재난활동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재난현장의 실질적 대응능력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① 전문교육 기관인 중앙소방학교와 충청소방학교에서 의용소방대 교육 과정별 실무교재를 발간하여 보급하는 것입니다.

2015년 국민안전처에서 보급한 「의용소방대 기본교육과정 I, II」 기본교재 이외에 전담의용소방대장이나 생활안전구조대 등 특화된 전문교육과정별 교육교재를 개발하여 기능별로 의용소방대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② 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과정을 확대 보급하는 것입니다.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년 2회의 의용소방대장반 교육을 전국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 고급관리자반」 정기교육으로 확대 실시하여 각 시·군의용소방대연합회장들은 적어도 년 1회 이상 정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충청소방학교에서는 년 1회 4개시도(대전·세종·충남·충북) 의용소방대장반 교육(약 220명)을 각 의용소방대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총무부장, 방호부장, 지도부장이 받을 수 있는 「의용소방대 실무담당자반」을 신설하여 중견간부들의 정기교육까지 확대 실시함으로써 재난현장의 실질 대응능력을 강화함은 물론 각 의용소방대별로 자체 교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③ 실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대형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구조종합훈련 등을 실시할 때에 소방보조 역할에서 벗어나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초기부터 전담의용소방대의 선착대 활동과 제1통제선 교통통제, 외부자원대기소 자원분류, 소방용수시설 점령조 편성 등 세부적인 임무를 부여하여 훈련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의용소방대원 개인안전장구 확대 보급으로 적극적인 현장 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2015년 이전에는 전담의용소방대에 방화복, 안전헬멧, 안전화 등 기본적인 진압장구만 지급하여 오다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약 20억원의 국비(소방안전교부세)가 지원되어 전담의용소방대의 화재진압 장구는 물론 안전장갑, 마스크 등 개인안전장구 10종 54,000여점을 지급 받아 대원들의 소방 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도 전담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활동하기 위해 보급 받아야 할 개인안전장구의 보급률이 50%에 머물고 있고, 일반의용소방대가 활동하고 있는 별집 제거와 동물포획을 위한 생활안전구조장비 또한 보급률이 의용소방대별로 1~2착 뿐이어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4~5착 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2017년에는 소방안전 교부세를 좀 더 확보하여 각 의용소방대 별로 필요한 안전장구를 확대 보급하여 대원 개개인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현장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연합회장으로서 의용소방대원들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말씀드리며 끝맺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30년 전만 해도 우리 지역의 재난은 우리 스스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도 해결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 이후부터 소방서와 소방관이 급격히 증가하여 관 소방력 중심으로 재난현장 대응활동을 하는 시대로 변화하면서 의용소방대의 활동이 축소되었고 현장 활동에 비해 가시적 효과가 적어 졌음에도, 언제부터인가 의용소방대원의 소방 활동이 소집수당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봅니다.

일부 의용소방대원들 사이에서 “소집수당 없는 활동은 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작금의 현실이 저를 비롯한 선배들의 잘못이라고 깨달으면서 앞으로 우리 의용소방대원 스스로의 마음가짐부터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 우리 선배들이 해 왔듯이 우리의 소방활동이 소집

수당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을을 내가 먼저 스스로 지킨다는 사명으로 푹푹 뭉쳐 행동할 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믿어 준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것이 우리 의용소방대가 지켜내야 할 자존심이고 의용소방대 조직의 최고의 가치인 의용봉공 정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주변의 기업체 등에 근무하는 우수한 자원이 의용소방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장 등 지휘부의 노력이 필요하고, 의용소방대원으로 입대한 후에 전문적인 자격을 취득하도록 체계적인 대원 관리와,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현장 활동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의용소방대원의 질을 한층 높여, 우리 지역의 재난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지역안전의 파수꾼이라고 자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주신 홍성현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하여 충남행정동우회 최경식 부회장님, 천안동남소방서의용소방대 김형미 여성회장님, 천안동남소방서 김태익 소방행정과장님과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의용소방대원분들과 지역주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친서민 소방봉사단체로서 이미지 구축 강화 방안

천안동남소방서의용소방대연합회 여성회장

김 형 미

안녕하십니까?

천안동남소방서의용소방대연합회 여성회장 김형미입니다.

오늘 의용소방대의 발전을 위해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홍성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천안서북소방서장님으로 재직하시다 퇴임하신 최경식 전임 소방서장님과 충남의용소방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이호명 연합회장님, 그리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생하시는 천안동남소방서 김태익 행정과장님과 의용소방대의 발전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의용소방대원들과 주민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천안지역의 70년 의용소방대 역사 속에서 여성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에 대해 잠시나마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의 고민의 결과는 서민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가 서민들이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의용소방대를 믿고 찾을 수 있는 소방봉사단체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이미지를 구축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2014년 까지 여성의용소방대가 주로 활동하였던 화재 취약지역의 예방순찰과 화재예방 캠페인 등 홍보 위주의 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도민들의 생명소생률 향상을 위한 119수호천사 활동 강화와 화재, 전기, 가스 등 안전을 위해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 여성의용소방대원을 증원하여 다문화 가정의 안전과 생활정착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도민들의 생명소생률 향상을 위한 119수호천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① 119수호천사 강사 자격자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방안전본부 통계에서 확인한바, 2014년에 1,115명의 심정지환자가 발생하여 그중에 26명이 심폐소생술 실시로 생명이 소생하였고, 2015년에는 1,221명의 심정지환자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로 44명의 고귀한 생명이 소생하였고, 우리도의 2015년 생명소생률은 심정지환자 발생대비 3.6%로 전국 18개 시·도에서 6위, 도 단위에서는 2위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도민의 생명보호와 행복할 권리 실현을 위해 병원 전단계 심정지환자 소생률을 선진국 수준인 10%까지, 도 단위에서는 1위를 목표로 전 도민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소방서 구급대원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소방서 구급대원들의 교육만으로는 도민들의 심폐소생술 실시 능력 향상을 조기에 달성하기 어려워, 2015년부터 여성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119수호천사 강사 자격자들이 도민들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충청소방학교에 입교하여 108명의 119수호천사 자격을 취득하여 도민 53,745명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

하였고, 2016년 상반기에는 100명의 119수호천사 자격을 취득하여 총 208명의 119수호천사가 65,000명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선진국 수준의 10% 소생률을 달성하기 위해 소방본부가 계획한 2016년 교육목표 인원 21만 명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119수호천사 강사자격취득자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취득한 208명의 119수호천사 강사 자격자를 포함하여 119수호천사 강사자격 취득인원을 우리도 여성의용소방대원 3,417명의 15%인 500명을 목표로 2017년 150명, 2018년에 150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방본부와 충청소방학교에 119수호천사 자격 양성교육 계획인원을 150명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코자 합니다.

또한 천안동남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여성의용소방대에서도 2015년 6명과 2016년 상반기 4명의 119수호천사 강사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여성의소대원 220명 대비 15%인 33명에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2017년과 2018년에 연차적으로 119수호천사 강사자격자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실시하는 맞춤형 생활안전교육 강화 방안입니다.**

2015년부터 화재취약대상에 대하여 화재, 전기, 가스 등의 안전교육은 물론 교통안전과 성폭력예방교육까지 실시하는 서민 밀착형 생활안전교육 강사자격을 한국소방안전협회로부터 총 28명이 취득하여 17회에 700여명 교육을 실시하였고, 동남소방서의용소방대연합회 여성의용소방대에서도 2명의 생활안전강사자격을 취득하여 면사무소 등 4회에 40여명의 교육 실적으로

실질적 서민 밀착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앞으로는 지역의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 등을 119수호천사들과 함께 직접 찾아가서 심폐소생술 교육은 물론 화재예방, 전기, 가스 안전사용요령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여성의용소방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실시하는 맞춤형 생활안전교육 강화 방안입니다.**

2015년 말 현재 우리 도에 6만 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6만명중 2만 1천명이 여성으로서 낯선 이국땅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의용소방대에서 외국인들에게도 지역안전 봉사활동 동참은 물론 같은 외국인들의 안전한 생활 정착을 위해 2011년 이후 의용소방대원으로 모집하여 2015년 말 현재 우리 도에 중국 11명, 베트남 6명, 필리핀 15명, 캄보디아 2명, 몽골 1명 등 총 35명이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천안동남소방서에는 중국 1명, 필리핀 1명 등 2명이 다문화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천안지역 외국인 거주인원 1만 7천명 중 약 7천명의 여성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이 여성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각 여성의용소방대에 다문화가정을 위한 안전체험교실 운영 및 한글교육 등을 실시하여 그들 스스로 여성의용소방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능력을 갖추도록 한 후에, 그들 스스로 주변의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생활안전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하여 다문화 가정도 우리 지역에 안전하게 정착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여성의용소방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 여성의용소방대가 걸어온 활동내용에 대하여 잘한 점은 칭찬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할 내용이 있다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과드리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여 동남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가 우리지역의 서민들과 함께하는 소방 봉사단체로 거듭나고자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홍성현 도의원님과, 충청남도의회소방대연합회 이호명 회장님, 좌장으로 수고해 주신 충남행정동우회 최경식 부회장님, 천안동남소방서 김태익 소방행정과장님과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용소방대 위상 제고 및 발전방향

천안동남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김 태 익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천안동남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김태익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홍성현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충남소방행정동우회 최경식 부회장님, 이호명 충남 의용소방대 연합회장님, 김형미 천안동남소방서 여성 연합회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의용소방대원과 소방공무원,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의용소방대의 발전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마련되어 소방공무원으로써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용소방대는 지역의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조직된 자발적인 봉사단체로써 조선시대 초기 세종8년에 설립된 금화도감부터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조선시대부터 그 이름만 달리하여 운영되었을 뿐, 항상 재난 현장을 함께 하며 사고의 예방, 대응, 복구에서 그 존재를 부각시켜 왔습니다.

특히 현재에는 대형재난이 발생한 곳이나 소방서의 손이 미치기 어려운 먼 지역에서 사고현장 가장 가까이에서 대응하거나 소방공무원을 도와 현장 대응에 이바지함으로써 자율방재단체로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난 방재의 책임이 관에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소방조직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인지도는 설립 초기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는 관설소방이 생기기 전부터 활동했던 조직으로써, 관설 소방의 한축을 영위하는 중요한 조직임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축소되는 작금의 상황을 살펴보고 의용소방대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방안 및 의용소방대의 발전방향에 대해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의용소방대는 전문자격을 갖춘 인재를 확보해야 합니다.**

의용소방대가 소방서의 업무를 보조하는 봉사단체이지만,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구급활동 등 전문적인 봉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대원의 전문적인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약 80% 대원들이 농업, 어업, 상업, 주부 등 비전문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나마 소방관련 자격증 소유자도 전체의 20%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 발전과 더불어 재난의 양상도 더욱 복잡해져, 우리 소방의 역할은 기존의 화재진압에서 인명구조, 구급활동, 생활안전,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재난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며, 기존의 소방공무원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의용소방대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소방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건축,

전기, 토목, 방사능, 지진, 잠수 등 다양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방면의 전문가를 영입하여 의용소방대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방 업무는 우리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최근 생활안전 서비스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자동차 정비사, 열쇠 전문가, 엘리베이터 정비 전문가, 의사, 간호사 등의 영입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의용소방대에 다양한 인재들이 영입된다면, 의용소방대원이 본인의 전문성을 소방공무원에게 전수하여 관설 소방과 의용소방대가 서로 win-win할 수 있는 시너지도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 조직내 기존 대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전문교육훈련의 활성화입니다.**

미국의 경우, 의용소방대원의 현장활동이 빈번하기에 전문적인 교육훈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신규대원은 2~3개월의 전문소방훈련을 받고 기존대원들은 화재진압훈련, 위험물 대응훈련, 응급구조훈련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각 지역의 소방학교를 통해 주기적인 전문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용소방대의 교육은 월 1회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정기교육이 대부분이며, 이 또한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앙이나 지방소방학교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기는 하나, 아주 미약한 정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외국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전문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소방 관련 자격증 취득을 독려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하자면, 소방 관련 자격증, 예컨대 건축, 전기, 기계, 자동차, 구급 등의 자격증 보유율을 의용소방대의 성과지표로 삼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 **셋째, 의용소방대의 의식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봉사단체로서 주요 단체가 아닌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소극적이 되기 쉽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여 현장으로 출동해보니 먼저 도착한 소방공무원들의 현장에서 화재진압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비전문가인 의용소방대원이 앞장서서 화재현장에 뛰어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의용소방대원이기 때문에 정규 소방공무원들 뒤에서 보조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자율적 재난대응조직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용소방대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들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체로 의용소방대원과 소방공무원은 서로 교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간의 이해의 폭도 좁습니다.

양자간의 주기적인 교류를 활성화한다면 서로간의 이해가 깊어지고 의용소방대원들도 소방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도시

지역에서의 의용소방대의 역할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며 ‘지역 안전의 파수꾼’이라는 공통적인 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방법과 수단, 즉 소통창구도 다양하게 만들어 운영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용소방대의 조직은 지역 주민의 지원이나 응원이 없이는 입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단체인데 이러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이러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점차 의용소방대와 소방공무원의 교류는 물론 지역주민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더욱더 친밀하고 유기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와 관설 소방이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부터 의용소방대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지원되어 전담의용소방대에 공기호흡기, 방화복, 장갑, 마스크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급률이 약 5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현장 활동을 위해서 개인안전장구의 보급 및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활용성에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 2년동안 의용소방대원에게 보급된 개인안전장구의 실제 사용률을 분석해보면 매우 미비합니다. 보급된 개인안전장구 대부분이 지역대 창고에 고스란히 쌓아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화복 사용연한이 3년인 것을 감안했을 때, 2년전 지급된 방화복은 한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1년 후 폐기해야할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전원에게 무의미한 개인안전장구 지급보다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예컨대, 소방 조직의 미비한 점을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을 의용소방대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 예산을 적극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현재 소방조직에는 소방차 전문 정비사가 필요한데, 만일 의용소방대 내에 자동차 정비사가 있다면 비상근으로 채용하여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화재진압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화재가 났을 때 , 반드시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는 대원을 화재 진압반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평상시 항상 출동이 가능한 대원에게만 개인안전장구를 지급하도록 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별도의 직장이 있는 대원들보다는 비교적 이동이 없는 대원들(상업 종사자, 농업종사자)에게 화재진압 업무를 맡기는 것입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의용소방대의 업무를 명확히 부여하지 않고, 단지 장비만 보급하는 것은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에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의용소방대의 활동영역이나 활동내용들에 대한 재평가와 분석을 실시하여 시대 흐름에 호응하는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활동 방안이 무엇이고 조직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신중히 검토할 때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